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비전2020운동본부

자매부대인 3사단 방문

26일(목) 오전 8시 교회 출발

비전2020본부(위원장 홍정호 장로, 본부장 이번생 집사)는 26일(목) 강원도 철원·금화 지역에 있는 3사단 사령부(사단장 이성규 소장)와 사단교회(목사 전우상 대위)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휘관 및 교회를 심방, 부대의 비전2020운동 진행 상황을 듣고 기도회를 마련함으로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 75%의 복음화를 현장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장병들의 세례식 지원을 포함하여 군복음화 운동에 대한 협력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한편 방문단은 이번 여름 홍수에 많은 피해를 많이 입은 3사단 인근을 돌아보며 위로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에는 이종윤 목사를 비롯 본부 임원 및 기드온 용사로 지원한 후원 회원 등 모두 45명 가량이 참가하게 된다. 참가자는 당일 오전 7시 30분까지 교회에 모여 8시 버스로 출발하며 현지에서 모든 순서를 마친 후 오후 6시경 서울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방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까지 비전2020운동 본부나 사무국에 신청

하시면 된다.

부대 방문에 앞서 본부에서는 13일(금)과 20일(금) 오후 8시 2층 예배실에서 임원들의 준비 모임을 갖고 후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동 계획과 실적을 보고한 뒤 기도회와 다과회를 열었다.

장로수련회 개최

27(금) 오후 5시 경기도 기흥

장로수련회가 27일(금) 경기도 기흥에서 개최된다.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이종윤 목사와 이성희 목사(연동교회)가 강사를 맡았다.

장로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올 여름 각 부서 수련회는 모두 막을 내리게 된다.

창립예배 비디오 상영

오늘 찬양예배 후

오늘 찬양예배 후 우리 교회 창립예배 광경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한다.

1991년 11월 24일 창립예배에 앞서 성도들은 '50일간(7주간) 준비 기도회'를 가졌다. 성도들의 열화와 같은 열심과 정성이 무척 당일 서울교회 간판을 걸고 창립예배를 드린 것이다.

오늘 상영되는 비디오에서는 의자도 없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던 50일의 준비 기간이 지난 창립예배일에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높고 큰 비전이 제시되고 우렁찬 첫 발자국을 내디딘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6학기 서울성경대학 참가안내

사무국에서는 제 6학기 서울성경대학 수강 신청과 접수를 받고 있다.

서울성경대학 제 6학기 교과과정표(9 - 12월)

강좌	요일·시간	강사	개강일
갈라디아서	월요일 오후 8시	정운돈 목사	9월 6일
사무엘상	화요일 오전 6시	이성득 목사	9월 7일
스바나	화요일 오후 8시	지혜영전도사	9월 7일
느헤미야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9일
음악교실	목요일 오후 8시	허희철 집사	9월 9일
리더양성반(L.T.C.)	금요일 오후 7시	고경선 목사	9월 10일

누가 일할까?

제 16학기 목회자세미나에서 수강하실 분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9월 6일(월)부터 10주간 계속될 16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봉사 장소로 직접 오시면 된다.

문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 517-7651.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강의안 편칭, 제본	토요일 오후 3 - 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교재 및 유인물 준비	주일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식사 준비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하나, 에스더 회원
집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남자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 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자성도 여덟 분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두주) 12시 - 오후 4시, YMCA	열 두 분(3인 1조로 4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여자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하나, 에스더 회원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남자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	남녀성도 각 세 분씩

이사야 강해

주께서 평강을 베푸시오니

이사야 26장 1 -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힘이 강해서 된 일인 줄 알고 교만했습니다(11절).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을 보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손이 높이 들렸다는 것(11절)은 이스라엘이 매를 맞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는 열심을 보이시게 될 터인데 바벨론은 그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은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을 내는 일도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내시는 열심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11절)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앞에 패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이 패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이 평강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12절). 사탄 마귀가 패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강을 얻게 됩니다.

1. 주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것이 공홀이든 심판이든 그 일들을 회고해 보면 결국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열심 이상의 안전 보장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임금들의 지배를 받았으나 하나님보다 저들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신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의 왕들이 크게 보여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며 참되고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현실보다 영원하

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2.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되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는 것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임박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중운 목사

‘나라’ (15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역경에 처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없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환난을 당하고 역경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고 징벌을 받을 때(16절) 그들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은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환난이 올 때에 주님을 앙모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갈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3. 인간의 노력으로는 평강을 얻을 수 없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써 보았지만 그 노력은 헛될 뿐이었습니다. 잉태를 하고 산고를 당하였으나 그들이 낳은 것은 바람과 같이 무용지물뿐이었습니다(18

절). 이와 같이 인간의 노력은 헛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시 127:1).

히브리어로 ‘살롬’은 하나님의 평안을 뜻하는 것으로 모든 좋은 것을 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풍년이 든 것을 살롬이라고 하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승리를 한 것이 살롬이며 인간에게는 육신이 병들지 않을 때 살롬입니다. 이 모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같이 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놓아주시고 평강을 베푸십니다(19절).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롬 4:17).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빛난 이슬’은 빛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슬,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농촌전도대에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이 한 분 한 분 떠오른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기에... 대다수 사람들은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떠나기에 바쁘고 있는 때에 생면부지 산간벽촌의 주민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며 맘 흘려 봉사할 마음을 가지며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함께 아나하시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모두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행사를 마친 지금, (치출하고 간교한 사단의 도전이 없진 않았지만) 그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그냥 감격할 뿐이다.

교회를 배척하던 주민들이 집회 때마다 참석하여 집회장에 넘쳤고 마을의 행정책임자인 이장은 불신자임에도 아침, 저녁 방송을 통해 집회를 홍보해 주었고 저녁 집회에는 참석하여 두 번이나 감사함을 표했다. 주민들은 고구마와 감자 등을 가지고 와 우리를 대접하며 위로하려 애썼고 차량까지 동원해 장작을 날라다 주는 등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맘을 흘리며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며 봉사하려는 대원들의 거룩한 참사랑을 그들의 가슴으로 읽을 수 있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를 징검다리로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기를 그들도 우리와 같이 간절히 소망했을 것이다.

삼 일 동안의 전도집회에서 주민 40명에게 굳게 닫힌 불신의 빗장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들이 엎드려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처음해 봅니다. 여러 곳의 교인들이 전도를 하고 갔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행사를 하고 갔을 뿐 주민들과 교회에 오히려 폐를 끼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안일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그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큰 위선인가를 지적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연 4일의 행사 기간 동안 날씨는 청명했고 한낮의 열기는 대단했다. 마을 길목에 세워져 까맣게 녹슬어 그 기능을 상실한 마을 게시판은 녹이 제거되고 페인트칠이 되어 새 것으로 바뀌었고 담배 연기에 절어서 불결했던 회관 방은 신히방처럼 산뜻하게 도배되었다. 썩어 타는 연기가 안개처럼 자욱한 사택에는 부항과 침을 쬐는 채 환자들이 방 세 개와 거실에 가득 누워 전도사님과 권사님들로부터 예수

님의 구원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들으며 가슴에 새겼고 부락 3곳을 돌며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팀, 잘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준 교육분과팀, 집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와 감동을 어떠한 경우에도 상실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매고 가는 데 큰 힘으로 삼았으면 한다.

그들과 가까이 접촉하며 느낀 것은 유교 사상도 이젠 현대 문명과 문화에 상당히 퇴색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조상 숭배와 제사 문화도 이제는 일개 풍속과 관습으로 보려는 시각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종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임도 발견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전도 방법도 다양

농촌전도대의 못다한 이야기

얼마나 사랑하기에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상호 집사(농촌전도대 총무)

의 열기로 인도해준 찬양분과팀, 예상인원이 넘쳐서 마당 한 편에 가마솥 두 개를 더 걸고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열심히 취사를 준비하는 취사팀, 많은 사람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어서 잠시도 쉴 틈이 없이 머리를 만져주고 있는 미용분과팀, 가져간 돈보기를 눈에 맞추어 끼워주고, 영정에 사진을 찍어주고... 즉석 아이디어와 대원들의 사랑의 봉사는 끝이 없었다. 이미 성령충만으로 뜨거워진 대원들은 더위는 처음부터 아랑곳하지 않았고 얼굴은 밝고 행동은 진지했다. 진정으로 주님 위해 헌신하며 최선을 다했다. 짧은 3박 4일이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답게 일했고 그 보답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감동을 가슴 가득히 안고 돌아왔다.

하게 연구되고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저들도 성경 한두 구절씩은 외울 정도로 복음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저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다. 악한 마귀의 위선의 옷을 벗고 주님을 향해 바로 서면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의 옷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이번 전도대에 참여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기도도,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우리를 이끌고 수고해 주신 이성득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 서울교회가 복음을 실천하는 모든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있고 이름답고 향기로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본다.



할머니가 변하셨습니다

박천의(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주민)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우리 마을 맞은 편 교회에 다니고 있고 저희 숙모님은 마장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자 적는 것은 저희 할머니의 변화에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야 장손이라 별다른 애로 사항은 없었지만 저희 어머니와 숙모님은 그간 교회 다니는 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요. 그리고 이 동네가 본래 상당히 보수적이고 유교적 가치관이 뿌리깊은 곳입니다.

전도대가 왔다는 말은 들었지만 제가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 직접 참석 못하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대충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와 주셔서 우리 할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변화하신 것에 감사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지금의 모습이 변치 않기를 위해 계속해서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서울교회가 하시는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 ③ ●

조용한 감시자가 되어...

이운진(집사, 제 4교구)

어릴 적 북개되지 동네 하수도는 어느 집에서 오물이 나오는지 알 수 있었고 더러운 것도 금세 말끔히 씻겨 내려가고 손도 씻고 빨래도 하는 그런 개울이었다. 대청마루에 모시적삼 입고 부채만 부쳐도 시원했고 우물에서 건져 올린 수박은 당도도 꼭맞고 시원했다. 음식 찌꺼기는 뜨물통에 모아져 돼지 키우는 집에서 건어갔고 배설물은 거름으로 들어가 유기물질이 풍부한 토양을 만들고 이 땅에서 자란 농작물은 맛도 영양도 원래대로였다.

그러나 지금, 개발 위주의 정책과 소비 중심의 문화로 시장에 가면 구입을 망설이게 된다. 하수도는 북개되었고 그 안에서 생긴 유독 가스는 물의 흐름을 따라 땅을 오염시킨다. 거기에 산업폐수, 플라스틱류와 병인 폐기물의 소각으로 흘러나오는 다이옥신, 동물 사육과 어류 양식에 사용되는 항생제와 호르몬, 농약과 화학비료, 성장촉진제, 골프장에서 뿌려대는 살충제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그럼에도 두껍이 덮인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심지어 냄새조차 못나게 콘크리트로 덮어놓았다. 거기에 한번씩 유조선 사고라도 나면 기름은 온통 해안을 뒤덮고... 서민들은 어디에 항의조차 할 수 없어 가슴만 답답하다. 하나님께서 가끔 폭풍과 해일로 바다를 뒤집어주시지 않으셨다면 물고기와 바다생물은 이미 폐죽음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다.

피가 깨끗해야 몸이 건강하듯 물이 깨끗해야 지구가 건강하다. 물은 우리 주변에 가장 풍부하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1%를 덮고 있으며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다. 이런 풍부한 물 속에서 우리는 후손들이 먹을 물 걱정을 하고 있다.

그뿐만아, 자동차의 증가와 폐기물의 소각량 증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지구를 온난화시키고 해로운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을

파괴하여 피부암, 백내장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며 산성비로 사람도 땅도 바다도 피해를 입고 있다. 동물은 학살로 멸종되어간다. 소비 과잉은 쓰레기 문제를 야기시킨다.

환경문제는 유기적 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환경오염은 이상 기후를 만들어 태풍수, 지진, 기근 등을 만들어 결국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새삼스럽지도 않은 다이옥신의 충격이 지상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 주의를 새롭게 하고 있다.

자연의 인간에 대한 보복은 묘하다. 환경호르몬으로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조차 체내에 화학물질이 축적돼 있다. 70세된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환경호르몬에 노출됐지만 정자수가 줄지 않았다 하자. 그러나 이 할아버지의 2세는 정자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정류고환, 고환암 같은 질병에 시달린다. 딸들의 환경호르몬 피해는 아들보다 더욱 심각하다. 동성연애자가 증가하고 동물이 암컷끼리 노는 현상이 우연이 아니며 수많은 불임과 유산은 환경호르몬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지구 위에 뿌려대는 합성물질은 결국 우리 식탁과 우리 몸을 거쳐 자손 대대로 영향을 끼치므로 우리 모두가 지구를 회복시킬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20세기 대표적 신학자인 칼발트는 "대지는 하나의 식탁, 만인이 함께 그 소산을 나누어 먹어야 할 공동의 식탁이다"라고 했다. 문제 해결은 환경양심을 갖고 나부터 실천하여 내가 족과 내 자손의 건강을 지키는데 있다.

* 환경보호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잡아 적절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자.

*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온수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냉방 온도는 조금만 올린다.

* 버리는 물건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준비

하자.

- * 물, 종이, 합성세제, 샴푸, 린스, 일회용품,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제품, 수은건전지 등의 사용을 줄이고 무스나 스프레이는 가급적 자제한다.
- * 자판기 이용을 자제하며, 음료수는 병에 있는 것을 사서 마시도록 하고 과다 포장상품은 사지 않는다.

미래는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다. 절망 중에 빛이 있다. 목적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창1:1)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창2:7)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는데(창2:15-16), 벌순종으로 죄를 지었음을 깨닫자. 땅을 정복하기(창1:28) 보다 파괴한 것을 뒤우치고 다시 온 지면에 마음 놓고 먹을 거리가 넘쳐나는(창1:29)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재앙의 날에 피난처가 되시며(렘30:17) 고치는 여호와와 하나님(렘30:14, 17)을 섬겨 우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받고 병도 제함을 받아(출23:25), 임태치 못하는 자가 없으며(출23:26), 수명의 연장을 약속을 받아(잠3:2) 살다가,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돌아가며(창3:19), 자자손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는(창2:9), 에덴동산을 회복하자. 창세기 때의 공기, 물, 땅을 회복하여 책임없던 정복자에서 책임있는 정복자의 그리스도인이 되자.

■ 동정 ■

- * 신용식 집사는 17일(화) 을지로에 '플로라화장품'을 개업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 * 임상헌 집사(서회숙 집사)는 1년간 미국에서의 연수생활을 마치고 18일(수) 귀국했다.
- * 이번 주 식사는 윤찬오 집사·홍재식 권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임미뉴엘천양대는 23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종은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J 98.1MHz) 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서울성경대학교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2.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3. 비전2020운동과 군복음화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